

## “디지털콘텐츠 관련 부처간 자유경쟁 체제 필요”

허문행 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사업 단장이 퇴임 후 3월초부터 대학강단에서 후배양성에 나서고 있다. 안양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부에서 교편을 잡은 허문행 전 단장은 “정부정책을 직접 펼칠 수 있는 자리도 보람 있었지만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것도 가슴을 설레게 하네요”라며 “디지털콘텐츠를 체계적으로 공부한 학생들이 사회 적소에서 오피니언 리더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글 권경희 기자 / 사진 이혜성 기자



지난 달 8일 안양대학교 교수실에서 만난 허문행 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사업단장. 우리나라를 디지털콘텐츠 생산과 유통의 세계적인 메카로 만들겠다고 '디지털콘텐츠멀티플렉스' 구축을 진두지휘한 주인공이다.

그런 허문행 교수가 올 3월 개강부터 안양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로 부임, '컴퓨터개론' 등 1학년 수업 강의를 맡고 있다. 지난주에 입주한 본관 9층에 있는 허 교수의 연구실에는 아직 짐을 풀지 않아 빈 책장과 테이블, 그리고 전화기 1대가 놓인 책상만 텅텅 놓여있었다. 하지만 얇은 와이셔츠에 가디건을 두른 허 교수는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며 인터뷰 내내 밝은 표정이었다.

"아직은 강단에 선 지 며칠 되지 않아 모든 게 낯설고 무엇보다 가르쳐야 할지 얼떨떨하지만 학생들이 잘 따라와 줘서 고맙고 신이 난다"며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는일로 디지털콘텐츠 산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다"고 전했다.

허 교수에게 전 디지털콘텐츠사업단장으로서 디지털콘텐츠산업의 향방에 대해 듣고 싶다고 하자 "제게 뭘 들을 얘기가 있나요"라고 쑥스러워 하면서 말문을 열었다.

### 인재 양성이 DC 산업 발전의 첫걸음

"처음 맡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제 생각은 디지털콘텐츠 기업에게 정부가 가교역할을 제대로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1년 동안 나름대로 많은 것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국가적 차원의 큰 프로젝트를 펼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쉬운 점이에요."

허 교수는 디지털콘텐츠 기업들을 지원하고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전반적인 기반은 다져 놓고 나왔다고 보지만 '니모를 찾아서'와 같은 대형 디지털 영화를 제작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고 전했다.

"니모는 픽사와 디즈니가 함께 만든 3억4,000만달러의 블록버스터로 이러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프로세스와 노하우, 시장전략, 사람, 기술 등 많은 사람의 이해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작하기가 쉽지 않다"며 허교수는 "특히 그룹 컨소시엄을 만드는 작업과 예산을 얻기 위해 많은 곳에 설득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계획만 세워놓고 본궤도에 올리지 못하고 나온 것이 너무 아쉽다"고 밝혔다.

허 교수는 "디지털콘텐츠는 새로운 분야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정책 측면에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선진국형 정부구조로 바뀌면서 작은정부로 정책 원칙이 바뀌어 디지털콘텐츠도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이론이 많지만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는 시장원리로 절대 선진국을 따라 잡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진국보다 더 많은 지원책을 찾아야 한다"며 "미

국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군수산업에 이은 2대 산업으로 규정, 향후 2005년까지 전세계 시장의 70%를 점유한다는 계획을 갖고 DC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일본도 'e-Japan' 전략을 수립해 2005년경 자국내 DC 시장을 3조엔 이상으로 확대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귀뜸했다. 또한 "선진국에서도 디지털콘텐츠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것보다 훨씬 소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시장원리를 내세워 소극적 지원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반대했다.

허 교수는 또 "캐나다 호주 영국 등 선진국도 대형 콘텐츠 제작에 60%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성공 가능성이 입증된 업체에게도 쉽게 지원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직도 제조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량기업들이 콘텐츠 지원에는 뛰어들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 DC 산업 당분간 중복투자 필요

정부 정책에 있어 정통부와 문광부의 중복투자 지적에 대한 견해를 묻자 허 교수는 "당분간은 중복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본다"며 "초기 산업이기 때문에 산업 파이를 키우려면 경쟁을 시켜야 하는데 시스템체계를 갖추고 정책영역을 나누다 보면 소극적 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산업을 제대로 키울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허 교수는 또 "아직은 정부도 무엇부터 지원을 하고 체계를 잡아야 하는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부처에서 정책을 펼치고 산업이 어느 정도 커지고 난 후에 자연스럽게 부처간 해야할 일을 조정해 줘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재양성"이라며 "인재에 대한 고민은 오래전부터 해왔지만 지금은 디지털콘텐츠 프로듀서, 시나리오, 컬러리스트 등 전문가 양성에 적극 나설 시기"라고 말했다.

"일례로 컬러리스트 전문가는 국내에 손꼽힐 정도"라며 "콘텐츠가 세계에서 잘 팔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컬러를 잘 선정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인재층이 두꺼워야 하는데 이러한 인력이 전무한 실정이라 큰 일"이라고 우려했다.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선정돼 기대주로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이 현실은 고급인재가 태부족하다"며 "산업전망이 밝은 만큼 우수한 인재들이 꿈을 안고 입문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허 교수는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디지털콘텐츠사업단의 수장으로 디지털콘텐츠 정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자리를 맡으며 보람을 많이 느꼈다"며 "이제 대학생들의 4년간 대학생활을 책임진 자로서 그들이 사회 적소에서 충실한 일꾼으로, 오피니언 리더로 기여할 수 있도록 코멘트하며 보람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